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11/25 월요일

아침의 누림

행 1:16-25 (17, 25)

16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18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산 후,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19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지역어로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그 말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20 이따라서 시편에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또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

22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어 하늘로 올려지시던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3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진 요셉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맛디아였다.

24 그들이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밝히 보여 주시어,

25 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약 시대에는 오직 한 사역만 있다. ... 열두 사도는 모두 ‘이 사역’ 안에 있었다(행 1:17, 25). 이것은 신약에 유일한 한 사역만이 있음을 가리킨다. 나는 여러 해 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받는 문제에 관한 싸움으로 인해 나는 시간을 들여 이 문제에 관하여 순수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다. 나의 눈이 열려서 열두 사도가 모두 ‘이 사역’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에 대해 기도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이 사역을 대신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 주시기를 구했다(행 1:25).(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3 권, 진리 메시지, 4 장, 47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이 열두 사도에 한정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베소서 4 장 11 절과 12 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절은 사도들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 기간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는 많은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들 및 교사들이 있다. ... 12 절이 ‘그 사역들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역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의하라. 수많은 은사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한 사역의 일을 위한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는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의도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역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두 가지 일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일과 한 사역을 갖고 계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3 권, 진리 메시지, 4 장, 479-480 쪽) 신약의 유일한 사역은 모든 사도들 곧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일들(사역들)을 포함한다. 고린도후서 3 장 6 절에서는 ‘사역자들’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8 절과 9 절에서는 단수형인 ‘사역’이 사용된다. 그런 다음 고린도후서 4 장 1 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공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복수형 대명사 ‘우리’를 사용한다. 그는 자신(단수)이 이 사역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리(복수)가 이 사역(단수)을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새 언약의 많은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 언약의 사역이 있음을 가리킨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 중 첫 번째는 열두 사도였다. 사도행전 1 장 17 절과 25 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사역은 열두 사도, 즉 첫 번째 열 두 명의 신약의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사역은 봉사이자 일이고, 사역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사람들은 많다. 열두 사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 안으로 들어왔다. 비록 사역자들은 여럿이지만, 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오직 하나의 사역만 있었다.

이 모든 절을 고려할 때 ... 우리는 신약의 사역이 다름 아닌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 전체의 봉사이자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그림을 볼 수 있다. 이 사역 안에서 디모데는 ‘디모데의 사역’이라는 한 부분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한 부분을 갖고 있고, 나도 ‘나의 사역’이라는 한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안에 한 사역이 있고, 이 한 사역에 더하여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약의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지만, 이 한 사역 안에 한 부분을 갖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다.(신약의 사역 및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1 장, 15-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7;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8

11/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7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으며,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딤후 4:5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유일한 사역(고후 4:1, 3:8-9)에 참여한다. 이 유일한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고후 3:8)이다. ... 이 사역은 의롭게 함을 가져오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의 사역(고후 3:9, 롬 5:18 하)이다. 율법의 사역은 유죄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지만, 믿음의 사역인 신약의 사역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므로 완전히 유기적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은 생명이 성장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엡 4:15-16)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2 장, 45-4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4 장 1 절에서 바울은 많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우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 장 5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명령한다. ... 이것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이었지만, 이 개인적인 사역은 '이 사역' (고후 4:1) 곧 신약의 단체적인 사역이자 유일한 사역의 일부였다. 고린도후서 4 장 1 절에 있는 사역은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사역이다. 이 단체적인 사역에서 바울에게 그의 몫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그의 몫이 있었으며, 디모데에게도 그의 몫이 있었다.

모든 사역자에게는 사역에서 각자의 몫이 있다. 이 모든 몫을 함께 더할 때, 우리에게는 '이 사역' 즉 신약의 사역이 있다.

신약의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엡 3:9-10)을 성취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12 절은 모든 성도가 '그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수백, 심지어 수천의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 '그 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는 신약의 유일한 사역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 이 경륜을 수행하려면 많은 일이 필요하고, 그러한 일이 곧 그 사역이다. ... 에베소서 4 장 12 절은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 중 몇몇은 자신들이 다수의 사역을 의미하는 온갖 사역들을 받아들인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단 하나의 새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다수의 새 언약의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일꾼들이 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지라도 많은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일은 각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감독자 곧 한 주 건축자(고전 3:10) 아래에서 유일한 청사진에 따라 수행된다. 그 단 하나의 청사진이 있을 때 모든 의견들은 제거된다. 일의 각 부분이 반드시 단 하나의 청사진에 따라 한 주 건축자의 인도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일꾼들은 오직 하나의 건축의 일만을 수행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이나 또는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개인적인 사역들이 다만 ‘이 사역’ 곧 신약의 유일한 사역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역’ 안에는 사역에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의 부분들이 함축되고 포함되어 있다. 퍼즐 하나로 그림 두 개가 완성되지 않는다. 각각의 퍼즐은 오직 하나의 그림을 보여 준다. 이 그림은 많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에게 그 조각들을 알맞게 조합할 능력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단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역자들의 모든 개인적인 사역들이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사역 곧 신약의 유일한 사역을 갖게 된다(신약의 사역 및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1 장, 16-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2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8년, 3 권, 영문판, 249-255 쪽

11/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3:1-9 (6)

1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
2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7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 9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딤편 1:12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사역은 단체적인 사역, 곧 은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사역이다. ... 고린도후서 4 장 1 절에서 바울은 ... “내가 이 사역을 받았다.”라거나 “우리가 이 사역들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

이 사역을 받았으니”라고 말한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및 다른 사도들 모두가 이 사역 즉 신약에 있는 한 사역을 받았다.

사역은 봉사이다. 모든 사역자들은 이 봉사를 수행하는 섬기는 이들이다(고후 3:6).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봉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봉사 곧 한 사역을 갖고 있다.

디모데전서 1 장 12 절에서 ... 바울은 “그분께서 나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유일한 한 단체적인 신약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단체적인 사역을 맡기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 권, 진리 메시지, 4 장, 480-48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사역은 단 하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유일한 새 언약의 사역을 의미하고, 이 사역은 신약의 수많은 사역자들의 유일한 봉사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이 사역의 한 부분을 갖고 있다. 각각의 믿는 이가 다 그 사역의 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역들이 아니라 단지 한 사역의 여러 부분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사역만이 필요하다. 하나보다 더 많은 사역이 있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신약의 사역 및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1 장, 19 쪽)

고린도후서 3 장 6 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문자’는 기록된 율법 조항을 뜻한다. 그 영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도들은 이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공급했다. 신약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을 위한 모세의 사역과는 달리,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 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죽이는 문자는 율법의 문자로서(롬 7:9-11), 사람에게 요구만 할 뿐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갈 3:21). ...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인 그 영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과 사도들 안으로 나눠 주시어, 그들을 생명의 언약인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다.

믿는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의 영이시다. 생명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신약의 사역을 조성하신다. 그러므로 신약의 사역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하나이며, 이 사역은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바울의 사역은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변화시키시는 영으로 조성되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 변화시키시는 영은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신약의 사역이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신성한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러한 영이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는 요소이신 그 영이시다.

우리는 사도들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수행할 역량이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자로 된 언약이 아닌 그 영의 언약의 사역자들이 될 역량이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고 가르치든, 그것은 그 영으로 조성된 말이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6 권, 그 영, 메시지 96, 247-2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장;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22장*

11/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행 20:18-27 (24)

18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19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21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22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영 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23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5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26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27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행 21:19

19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사도행전 1 장 17 절과 25 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 장 1 절과 디모데전서 1 장 12 절과 같은 절들은 신약에서의 사역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계시하지만, 다른 어떤 절들은 사역이 개인적인 문제임을 명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 사도행전 20 장 24 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에게서 받은 사역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의 사역은 개인적인 사역이다.

사도행전 21 장 19 절 또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 개인적인 사역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절들은 디모데후서 4 장 5 절과 골로새서 4 장 17 절이다. 디모데후서 4 장 5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을 완수하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골로새서 4 장 17 절은 “아킵보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킵보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481-48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 말하는 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몸의 지체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몸은 여러 사역들이 아닌 하나의 단체적인 사역을 갖고 있다. 몸 안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사역은 하나이다. 예를 들어 ... 내가 하는 말은 내 몸의 사역이다. 이 사역은 단체적이다. 그러나 또한 내 몸의 각 부분에는 각자의 사역이 있다. 입은 말하고, 손은 손짓을 하고, 발은 몸을

지탱한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의 사역들이 합해질 때, 그 총체는 몸의 유일한 사역이 된다. 이 예는 몸의 지체들의 많은 사역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적인 사역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사역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원래 사도들의 시대에는 한 몸과 한 사역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하락으로 인하여 분열과 교파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 분열된 모든 단체는 각자 소위 사역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 여러 교파에 있는 사역자들과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몸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교파를 세우는 일이다. 각자 자신의 교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우리는 교파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곧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약에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역이 있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이 사역의 연장임을 믿는다. 나는 내가 이 사역 안에 있고 이 사역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우리는 신약경륜에 따른 유일한 사역 안에 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교파가 없었다. 교회가 하락하고 많은 분열이 생기면서 한 눈에 봐도 현재 허다한 사역들이 존재한다. 사도들의 사역의 연장인 유일한 사역에 참여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교파들과 분열적인 모임들의 사역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회복은 손상될 것이다. 합당한 사역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역들의 목표는 교파를 건축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를 건축하는 사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482-4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11/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10

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엡 4:7-16 (11-12)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9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며 단체적이다. 그러나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각자의 사역이 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역들이 있다. 그러나 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오직 한 사역이 있다. 우리의 사역은 단체적인 사역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몸에는 한 단체적인 사역이 있고,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각자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몸의 지체들의 모든 사역을 함께 더하면 단체적인 사역이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48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사역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길에 따라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복음서는 동일한 것을 말하지만 동일한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 ... 마태는 왕의 직분이라는 각도에서 썼고, 마가는 섬김이라는 각도에서, 누가는 합당한 인성을 통한 구속이라는 각도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각도에서 썼다. 복음서들에는 한 인격에 대한 네 권의 전기(傳記)가 있다. 한 인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다. 나는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도록 많은 사람이 일으켜지기를 바란다. 이 동일한 한 가지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수년 내에 많은 젊은이들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게는 나 자신만이 유일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그것보다 나에게 있는 기대는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사역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역은 다양한 기능,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면을 지닌 하나의 사역이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나에게도 나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모두 여러 기능과 방면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몸의 사역이 있다.

회복을 떠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주님의 회복을 약화하고 주님의 회복에 손상을 주는 사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회복을 약화하고, 십자가를 포함한 생명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뒤엎으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의 사역을 받아들이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려에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건축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실행은 신약에 있는 진리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여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방면과 관점을 말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 주님의 긍휼로 나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다.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이 동일한 것을 여러 각도에서 공급하기를 기대한다. ...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관하여 공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 풍성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가 있다. 이것이 많은 사역들을 아우르는 한 사역이다. 우리는 모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요, 우리의 위임이자 우리의 부담이자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한 부분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485-4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합당한 교회생활을 위한 주요 원칙들, 4장

11/30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1:5-12

5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11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12 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 장 11 절에 나오는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만 있다. 이것이 신약 경륜의 유일한 사역이다(고후 4:1, 딤편 1:12).

에베소서 4 장 12 절의 문법적인 구조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과 동격이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사역의 일은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에베소서 4 장 12 절에 있는 '하게'는 '결과적으로 하게', '목적으로 하게' 혹은 '위하여 하게'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4 장 11 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의 사역의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취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0, 231-2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역의 일은 온전하게 하는 이들과 온전하게 된 이들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몸을 건축하는 것은 사도들과 다른 은사 있는 사람들의 일일뿐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일은

주로 은사 있는 이들만 감당하는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다. 인도하는 사도들을 포함한 은사 있는 이들과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은사 있는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다. 은사 있는 이들이 신성한 분배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사역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생명 공급을 주는 생명나무에 따라 성도들을 보양하여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창 2:9, 고전 3:2, 6).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사도들은 교회들을 방문하고(행 15:36, 40-41, 20:20, 31),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골 4:16, 고전 1:2), 그들의 동역자들을 어떤 곳에 머물도록 안배하여 그곳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딤편 1:3-4, 3:15, 딤편 1:5)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신언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람들 안으로 말해 내는 것을 가르치고, 집회에서 말함으로 본을 세우며, 매일 아침 부흥되고 매일 승리함으로 신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움으로써(행 13:1, 고전 14:31, 잠 4:18)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복음전파자들은 복음 전파의 영 안에서 불타도록 성도들을 분발시키고,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경륜적인 영의 능력으로 장비되도록 돕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세움으로써(딤편 4:5)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목자들 및 교사들은 목양하고 곧 어린 성도들을 먹이며 보양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행 11:25-26, 13:1)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결과로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게 이르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이다(엡 4:13, 비교 요 17:23).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전하게 되는 길은 생명이 자라고 기능이 숙련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12 절에서 '온전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완전하게 하고', '장비시켜', '구비되게 하여'를 의미한다. 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완전하게 하고 장비되게 하며 구비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생명이 성장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0, 232-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전진, 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4장

찬송: 914 (英) 교회 위해 봉사함이 (中:658)

12/01 주일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1 교회 위해 봉사함이 하나님의 정한 뜻
사도들이 행한 바요 사역의 한 길일세
(후렴)

우리들의 모든 봉사 교회 위한 것일세
이는 주가 기뻐하는 온전하신 뜻일세.

2 교회가 주 그릇 됨이 하나님 계획이니
우리 모든 봉사로서 주의 집을 건축해

3 은사 받은 모든 사람 주의 몸을 위하여
주의 충만 이루도록 교회 건축해야 해

4 모든 은사 모든 기능 주의 몸을 위하여
모든 사역 성령 능력 주의 몸을 위하네

5 복음 전파 사역 목양 모두 몸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스림도 모두 몸을 위하네

6 모든 사역 교회 위해 사역 자체 안 위해
등잔대는 교회일 뿐 어떤 사역 아니네

7 이는 우릴 하나 안에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동기 시험하여 우리 목적 바꾸네

8 일에서나 분열에서 주님 우릴 구원해
교회 위해 수고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침의 누림

딤후 4:1-4, 6-8, 18, 22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3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4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나는 이제 부여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18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None
Assigned Reading: None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Triune God in Hebrews
Scripture: None

Assigned Reading: *LS of Hebrews*, msg(s).
63, 66, 68

Supplemental Reading: *God's New
Testament Economy*, ch. 17; *The Divine
Spirit with the Human Spirit in the Epistles*,
ch. 11; *The Spirit in the Epistles*, ch. 10

Questions:

1. What are some aspects of the Spirit revealed in the book of Hebrews?
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eternal" Spirit in God's economy?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Spirit of grace?
4.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spirit. in the book of Hebrews?